

이메일 일기 쓰기를 통한 학습 효과 및 문법 교육 접근

이 종 속
프린스턴한국학교 교장

머리말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 다음 중, 글자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 1. 1) 디근이, 디근에, 디근을 디그시, 디그데, 디그슬
- 2) 티율이, 티율에, 티율을 티으치, 티으세, 티으슬

- 2. 1) 피웁이, 피웁에, 피웁을 피프피, 피으베, 피으블
- 2) 키웁이, 키웁에, 키웁을 키으기, 키으케, 키으글

*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 3. 한번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 4. 1) 곧 말할게. 2) 곧 말할께. 3) 곧 말 할게. 4) 곧 말 할께.

- 5. 나는 사탕을 한 우큼 한 움큼 한 응큼 한 응큼 집었다.

- 6.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열 다섯 열네살 이천삼백구 제1차 세계대전 이다.

- 7. 표준어가 아닌 것은 가뭄 머릿말 소낙비 차돌박이 이다.

- 8. 영수야, 그냥 병 채로 마셔라. 병 채로 마셔라. 병 쟈로 마셔라. 병째로 마셔라.

- 9. 우리의 만남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바램이었어요.

- 10. 다음에는 이사장 님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I. 이메일 일기 쓰기를 통한 학습 효과

(3년간의 실험교육을 통한 학습 효과 보고)

가. 대상: 프린스턴한국학교 4-1반 학생

나. 기간: 2005년 봄학기(2월) ~ 2009년 현재

다. 방법:

1. 컴퓨터 한글자판 사용 기능 습득: 학부모의 몫
 - 학기가 시작되면 답임 편지나 전화로 학부모에게 이메일 일기 쓰기
 - 일기 숙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2. 일 주 한 번 금요일까지 이메일 일기 보낸다.
 - 초급: 두 문장 시작
3. 교사는 일기를 받자마자 답을 해 준다.
 - <참 잘 썼어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군요.>,
<온 식구가 뉴욕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순원이는 할아버지께서 한국 가셔서 섭섭하겠네.>,
<할아버지한테 배운 한자를 잊지 않도록 하자.>
 - 5주 후
<다음부터는 빨간 글씨로 쓴 것에 주의해서 일기 쓰기를 해 보자.>

다. 효과:

1. 학생들이 한글 자판 사용 기능을 가진다. (한국계 직장의 진출에 도움)
2. 한글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표현을 고민하다 문장력 향상과 바른 글 쓰기)
3. 일기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힘을 키운다. (나,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4. 학습 의욕을 가진다. (주중의 한국학교 생활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다.)

라. 실제:

- 정우, 한진, 최림, 한솔, 한원, 박경, 신현의 이메일 일기
- 졸업 일기장: <푸른 숲-유림 일기>, <희망의 샘-유나 일기>, <고운 미소-예린 일기>

II. 이메일 일기 쓰기를 통한 문법 교육 접근

1. 학습 내용

학교에서 페인트칠하던 것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까만 색 페인트를 학교에 두고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페인트칠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까지 이걸 학교에 못 가져갑니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2. 학습 대상: 중등반 학생 7명

3. 학습 시간: 45분

4. 학습 목표:

1) 두 종류의 부정문, Short Form 과 Long Form을 익힌다.

못 / -지 못하다

안 / -지 않다

2) ‘-지 않다 / -지 못하다’와 함께 다른 보조 용언을 익힌다.

밥을 먹지(본동사) 못하다. / 밥을 먹지(본동사) 않다. (보조 동사)

-아(어, 여) 버리다, -아(어, 여) 보다, -고 싶다, -르(을) 뻔하다, -르(을) 듯하다

5. 학습 자료: 교재(인쇄물), 문장 카드

6. 학습 과정:

(1) 도입(10분)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손을 들어 보세요?

왜 안 먹었어요?(판서함) ㄱ.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어요. / 못 먹었어요[못 먹다]

ㄴ. 안 먹고 싶어서요. / 안 먹고[안 먹다]...(먹고 싶지 않아서요.)

(2) 전개(25분)

1) 교재를 읽는다.

못 가져갈

끝내지 못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하지 않으면

* 부정문의 두 종류: 1) Short Form: 안 / 못

2) Long Form: -지 않다 / -지 못하다

2)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다.

못 : 진수는 테니스를 잘 칩니다.

ㄱ. 진수는 테니스를 잘 못 칩니다. (못 Adv.)

ㄴ. 진수는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합니다.

영이가 딸기를 먹어요.

ㄱ. 영이가 딸기를 못 먹어요. (못 Adv.)

ㄴ. 영이가 딸기를 먹지 못해요. (못하다 V.)

기린이가 한국말을 잘 합니까?

ㄱ. 기린이가 한국말을 잘 못합니까? (못하다 V.)

ㄴ. 기린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합니까?(못하다 V.)

안 : 나는 어제 뉴욕에 갔어요.

ㄱ. 나는 어제 뉴욕에 안 갔어요. (안 Adv.)

ㄴ. 나는 어제 뉴욕에 가지 않았어요. (않다 V.)

뜻밖에도 음악 연습은 쉬웠다.

ㄱ. 뜻밖에도 음악 연습은 안 쉬웠다. (안=아니 Adv.)

ㄴ. 뜻밖에도 음악 연습은 쉽지 않았어요 (않다 Adj.)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쁘지요.

ㄱ. 저녁 노을이 정말 안 예쁘지요. (안=아니 Adv.)

ㄴ.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쁘지 않지요. (않다 Adj.)

3)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익힌다.

- 나는 사과를 먹지 못한다. (V. 먹다, 못하다)

- 나는 사과를 먹지 않는다. (V. 먹다, 않다)

- 언니가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V. 먹다, 버리다)

- 영이야, 노래를 들어 보자. (V. 듣다, 보다)

- 철이가 보고 싶다. (V. 보다, 싶다)

- 토끼를 놓칠 뻔했다. (V. 놓치다, 뻔하다)

- 내일은 비가 올 듯하다 (V. 오다, 듯하다)

(3) 발전(5분)

* 문장 카드를 가지고 Short Form과 Long Form의 부정문을 만들어 보자.

문장 카드: <못>...저는 일기 숙제를 했어요.

Short Form: 저는 일기 숙제를 못했어요.

Long Form: 저는 일기 숙제를 하지 못했어요.

문장 카드: <안>...오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Short Form: 오늘 선생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Long Form: 오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 다음의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넣어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자.

<아기가 울다.(본동사)>..아기가 울지 않아요.

아기가 울어 버렸어요.

아기가 우는가 봐요.

아기가 울 뻥했어요.

아기가 울 듯하다.

〈언니가 편지를 읽다.(본동사)〉.. 언니가 편지를 읽지 못해요/ 않아요.

언니가 편지를 읽어 버렸어요.

언니가 편지를 읽는가 박요.

언니가 편지를 읽을 뻥했어요.

언니가 편지를 읽을 듯하다..

* 숙제를 나누어 준다

〈참고: 학생들의 이메일 일기〉

사랑하는 경이야,

- 일기를 참 잘 썼다. 아주 잘 썼어. 경이가 솔로를 맞는다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 경이가 하는 솔로를 나도 보고 들었으면 좋겠네. 경이야, 아니, 그래서 피자를 못 먹었어?
- 빨간 글씨는 주의해서 바로 써야 한다는 표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자.
- 잘 자고 내일 학교에서 반갑게 만나자. 안녕.

From: Park | To: chongsook | Sent: Friday, October 17, 2008 10:50 PM | Subject: 일기

목요일, 저는 학교에 반 나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Jazz Band가 있어서, 학교에 3시간 을 더 남아 있었어요. Jazz Band에서 피자를 먹기로 했는데, 피자 집에서 피자 order이 다음 날인 줄 (이지) 알고, 깜박 잊다가, 30분 후에 피자가 도착 했어요. 저는 3불 을 가지고안(않)와서, 피자를 먹을자격이 없었어요. 45분 동안 피자를 먹은 (인)후에 다시 연습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같이 Just in Time을 처음으로 연주 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Just in Time을 한시간 연습한V후, 처음으로 Fly me to the Moon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10분간 연주 해봤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어서 저는 좋았고요, 모두 모여서 Fly me to the Moon을 연습했고 제가 solo를 맡(맡)게 됐어요. 참 재미있는 연습이었다. 박 경

사랑하는 슬아,

슬이는 못하는 게 없구나.

미술도 잘해서 예슬이 그림이 전람회에 매년 나간다니 나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슬아, 시험도 잘 봐서 좋은 점수 나오고, 한국어도 잘하고.... 슬이가 못하는 건 뭐가?

슬아, 그림 우리 동화 대회에 나갈 것도 연습해서 잘 하도록 하면 좋겠지?

그것 다 외워 가지고 오도록 부탁한다. 다 외워서 자신 만만하게 해야 돼.

그럼 토요일에 만나자. 그리고 v표 한 것에 주의해서 쓰도록 하자. 안녕.

From: Han | To: 교장선생님 | Sent: Thursday, March 05, 2009 4:40 PM | Subject: 3/5/09-일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에는 잘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지난 주에 학교미술 시간에서 페인팅을 다 끝내지 못해서 목요일에 집으로 가져(주)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심히 페인트 해서 다 끝냈습니다. 제 페인팅은 우리 학교 district 아트쇼에 들어갈v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렸던 그림도 아트쇼에 들어가게v됐어요. 저는 뉴저지로 이사올v때 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아트쇼에 제 그림이v들어가게v됐어요. 아트쇼에 또 가게v돼서 좋고 내년에도 미술을 열심히v해서 또 아트쇼에 제 그림이 들어갔(스)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눈이 와서 학교를 안v갔습니다. 학교를 하루 안v가서 좋았고 조금 더 늦게까지 잘v수v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눈이 와서 밖에서 경이와 함께 조금 놀기도 했어요. 이번 주에는 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시험 두v개 본v거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즐거웠어요. 하지만 내일은 학교에서 시험이 두v개 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v돼요. 오늘 공부를 잘해서 내일 보는 시험들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스)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슬이 올림.

.....

사랑하는 원아,

수영하러 어디로 갔지? 재미있었지? 로버트 만드는 것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일 학교에서 반갑게 만나자.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이종숙

From: SWon | To: 'Chongsook Lee' | Sent: Friday, February 06, 2009 5:37 PM | Subject: 일기

선생님께, 수요일에는 수영하러 갔습니다. 너무쉬웠습니다. 어제는 Robotics 다시 갔습니다. Robot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Robot 는 programming 아직도 안했습니다. 다음주에 할겁니다!! 내(네)일뵈겠습니다! 원이 올림.

.....

사랑하는 정우에게

정우가 피아노 연습도 많이 했구나. 그럼, '흙 묻은 두부'를 다 외워야지.

언제 친구네 집에 간다고? 오늘 저녁에?

내일 학교에 와야 할 텐데. 내일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연습해 보자꾸나. 잘 자거라. 안녕.

From: Chong | To: Chongsook Lee | Sent: Friday, March 13, 2009 9:03 PM | Subject: 일기

오늘 우리는 연극 연습 잘끝냈습니다. 오늘숙제는 많이 없고 나는 내 친구 집에 가요. 우리는 스립오버 파티 할꺼예요. 나는 흙묻은 두부 사연 거진다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피아노 연습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내일까지 전부다 외워야v돼(되)요? / 정우.

.....

사랑하는 진아,

새로 손전화가 생겨서 좋겠구나. 물론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 봄과 함께 활기에 넘치는 봄날들을 보내도록 하자.

진아, 어머니께 고마워해야겠다. 그런데 가슴은 좀 어때? 요즘도 아팠는지 궁금해서....
여름 방학까지 기다리지 말고 진찰해 보면 어떨까?
진아, 그리고 일기 쓸 때 이제 조금 더 길게 쓰면 어떨까?
그래, 잘 자고 내일 미국 학교에서도 즐겁게 보내렴. 안녕.

Date: Fri, 3 Apr 2009 02:24:32 +0000 | From: 한진 | To: chongsook | Subject: 일기

선생님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비도 많이 오네요. 봄이 온 기념으로 제 어머니가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주셨습니다. 새로 물건이 생기니까 기분도 좋아지네(내)요. 선생님도 요번 주를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한진 올림

.....

사랑하는 림이야,
드디어 오늘이 왔구나. 그래, 잘 할 줄 믿어. 그런데 정우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니?
정우도 musical performance가 있다고 하니까.
림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 활동하는 게 난 참 기쁘구나.
끝까지 뮤지컬 출연을 잘 하기 바란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 그래, 괜찮아. 내일 11시 30분, 기억할게. 안녕.

From: Angela | To: Korean Teacher | Sent: Friday, March 27, 2009 4:49 PM | Subject: 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musical performance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하지만 너무 재미있을 것같아 걱정이 안됩니다. 선생님 저 내일 학교에 가서 11:30에 우리 musical performance때문에 미국 학교에 가야V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

사랑하는 현이야,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구나. 강아지하고 놀고 테니스도 치고 재미있었지?
내일 학교에서 반갑게 만나자. 숙제했나 살펴 보고 자렴. 안녕.

From: alfonso | To: chongsook | Sent: Friday, September 19, 2008 9:37 PM

추석(속)을 너무 좋아했(했)어요. 친구집도 가구 음식을 많이(마니)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집에서 강아지하구 놀았(노랏)어요. 내일 한국학교를 가구 친구들하구 대니스를 칠꺼예요. 신현이

